

전기전자

6월 스마트폰 출하량: 부진한 수요, 재고조정은 긍정적

전기전자/IT부품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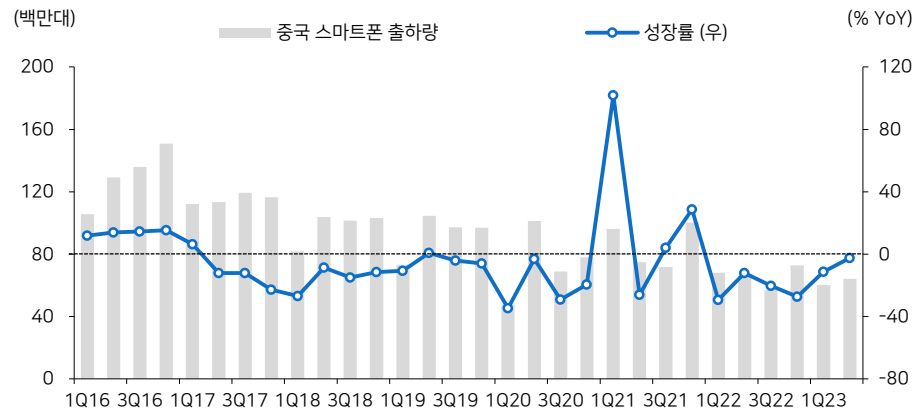
Analyst 양승수

02. 6454-4875

seungsoo.ya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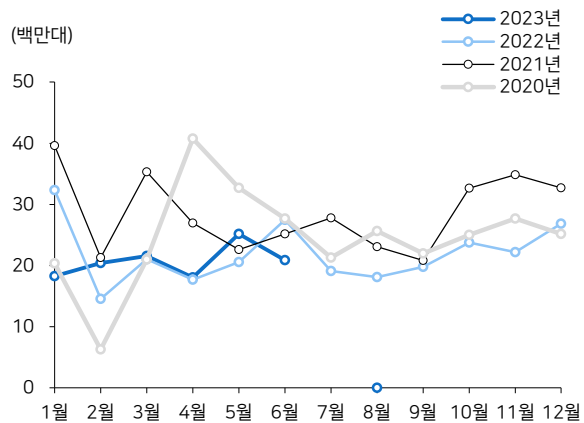
- 중국 6월 핸드셋 출하량은 약 2,215만대(-14.9% MoM, -20.9% YoY),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2,086만대(-17.2% MoM, -24.1% YoY) 기록
- Apple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Non-Local 핸드셋 출하량은 259만대(-28.2% MoM, -26.1% YoY), 점유율 기준 11.7%(vs 전년도 6월 점유율 12.5%) 기록
- 다만 1~6월 Non-Local 핸드셋 합산 출하량(2,446만대)은 작년 1월~6월 출하량(2,103만대) 대비 16.3% 증가
- Local 브랜드의 핸드셋 출하량은 1,960만대(-12.8% MoM, -20.2% YoY) 기록. 중국 '618 쇼핑축제'의 부진으로 인한 재고 조정이 발생. 점유율 기준 88.3% 기록
- 5G 핸드셋 출하량은 1,732만대(-14.2% MoM, -24.7% YoY) 기록. 전체 모바일 폰 중 5G의 비중은 78.2%(최근 1년 평균 비중은 78.3%)
- 6월에 출시된 핸드셋 신모델은 22개, 스마트폰 신모델은 15개, 5G 핸드셋 신모델은 7개, 5G 핸드셋 신모델은 7개로 전월 32개, 27개, 11개 대비 감소
- 예상대로 6월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부진. 이는 1) '618 쇼핑축제'를 대비한 셀인 재고 축적 수요가 5월에 선 발생했고 2) 618 쇼핑축제 판매량 부진의 여파로 추가적인 셀인 물량 증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 중국 실수요의 반등은 여전히 저조하나 6월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2,460만대 추정)과 출하량을 비교했을 때, 재고소진이 발생했다는 점은 하반기에 긍정적
- 특히 당사는 1) 평년대비 보수적인 스마트폰 출하(그림9)로 재고가 내려와 있고 2) 중국 스마트폰과 상관관계가 높은 중국 카메라모듈 업체들의 출하량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그림10, 15)을 고려했을 때, 3분기 유의미한 셀인 재고 축적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선행적인 재고조정으로 낮은 재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하반기 실적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당사 커버리지 기업 중 삼성전기 선호

그림1 분기별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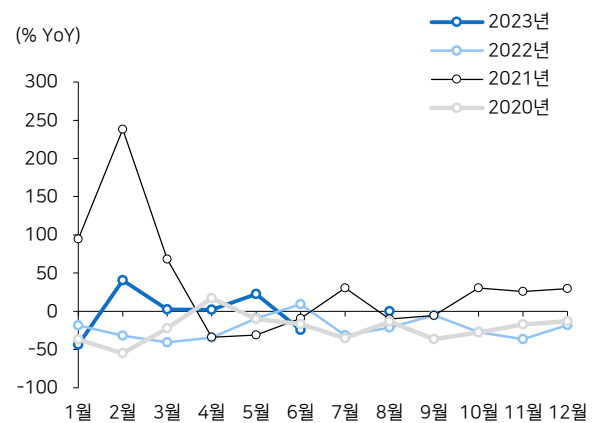
자료: CAI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중국 스마트폰 월별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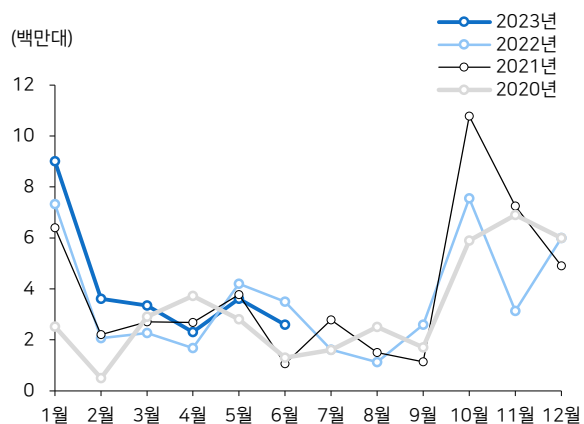
자료: CAI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중국 스마트폰 YoY 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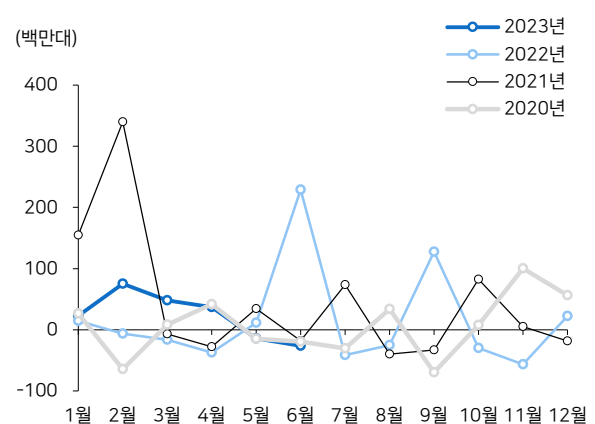
자료: CAI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중국 Non-Local 브랜드 월별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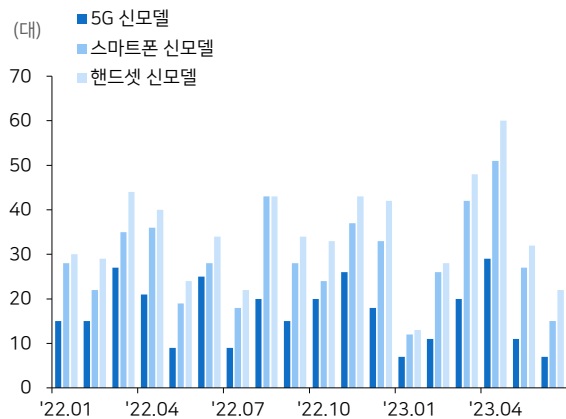
자료: CAI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중국 Non-Local 브랜드 YoY 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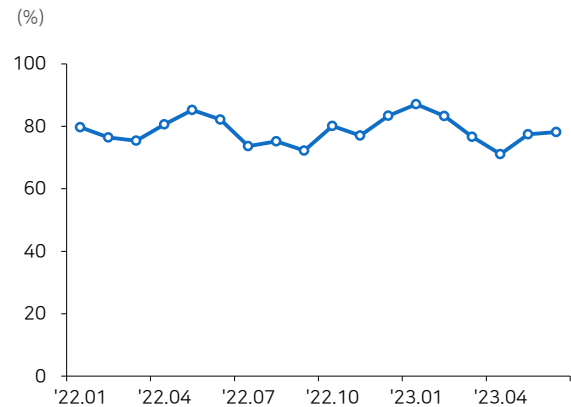
자료: CAI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중국 내 신모델 출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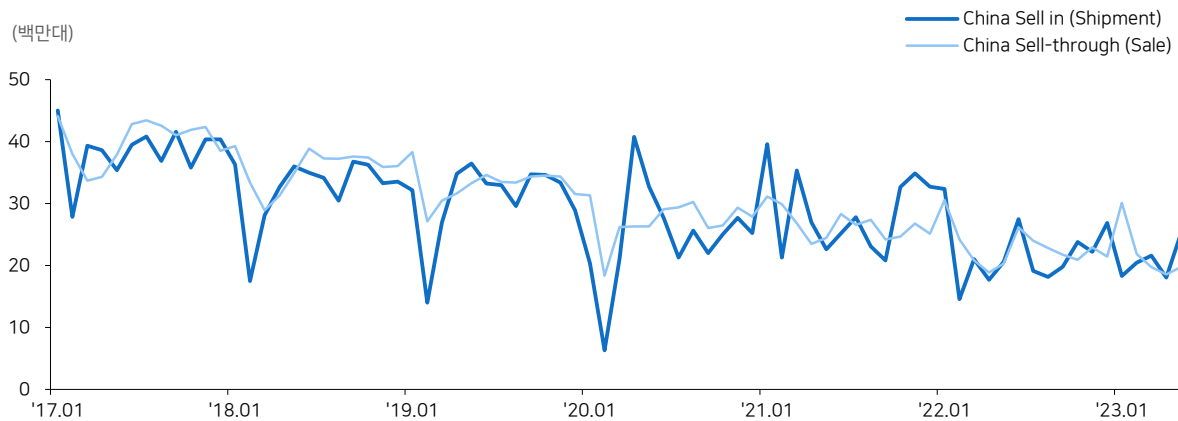
자료: CAI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중국 모바일 폰 내 5G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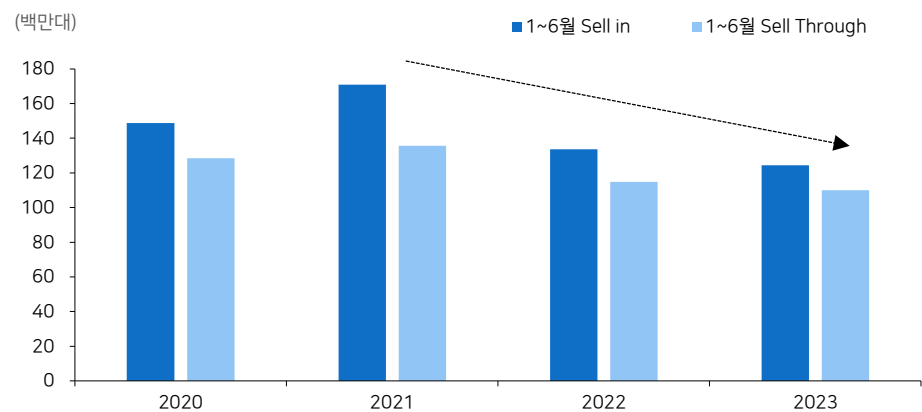
자료: CAI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판매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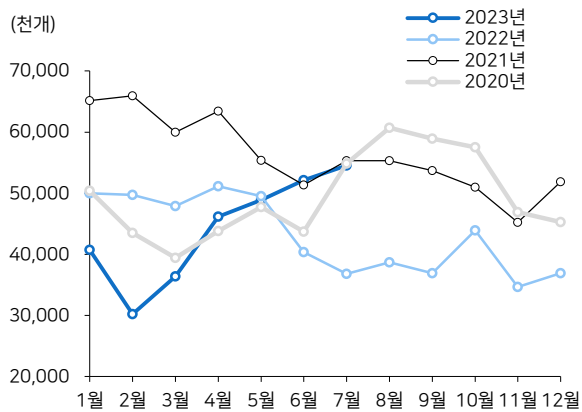
자료: CAI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중국 스마트폰 1~6월 Sell in vs Sell Through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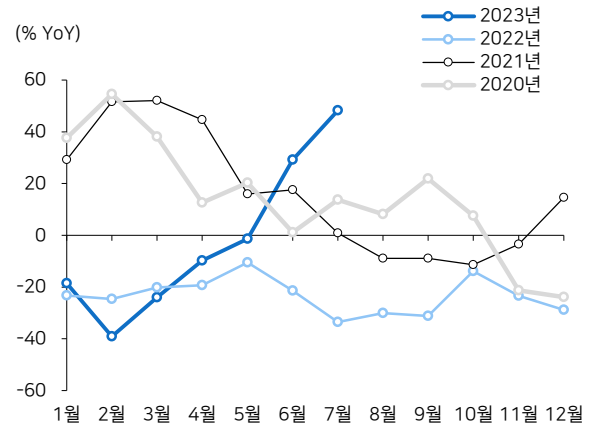
자료: CAI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써니옵티컬 핸드셋용 카메라모듈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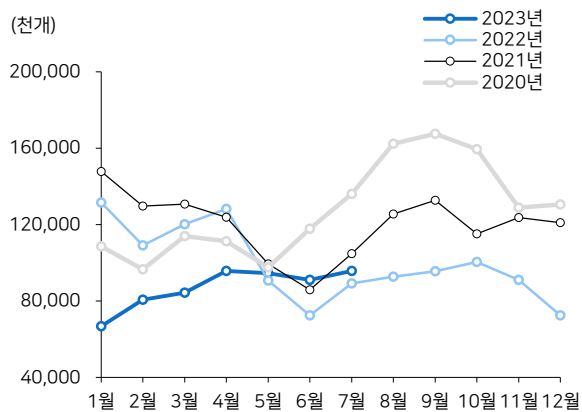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써니옵티컬 핸드셋용 카메라모듈 YoY 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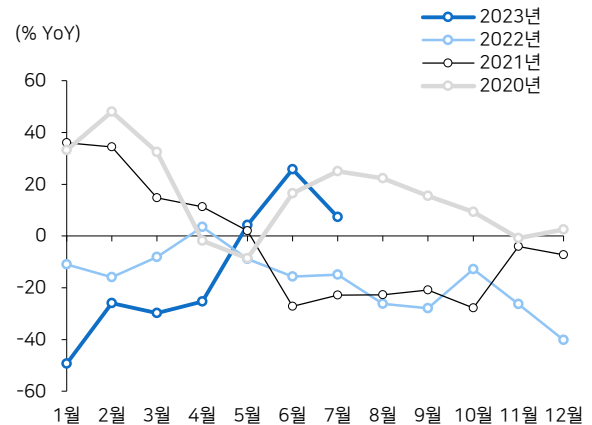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써니옵티컬 핸드셋용 렌즈 출하량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써니옵티컬 핸드셋용 렌즈 출하량 YoY 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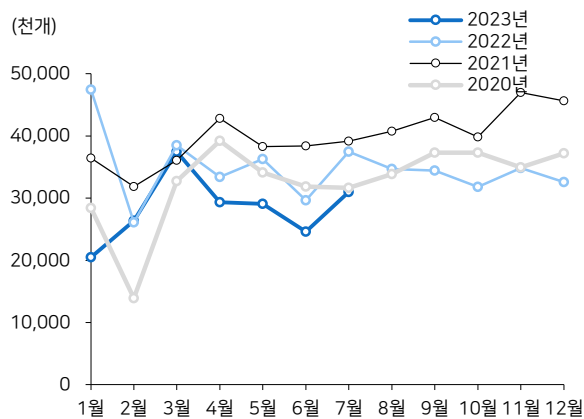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과 써니옵티컬 핸드셋용 카메라모듈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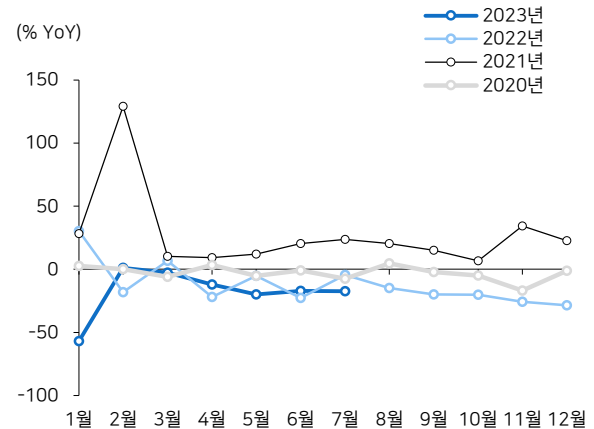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큐테크놀로지 핸드셋용 카메라모듈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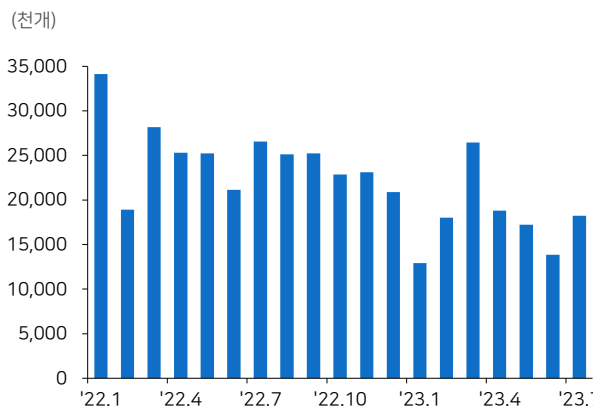
자료: 큐 테크놀로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큐테크놀로지 핸드셋용 카메라모듈 출하량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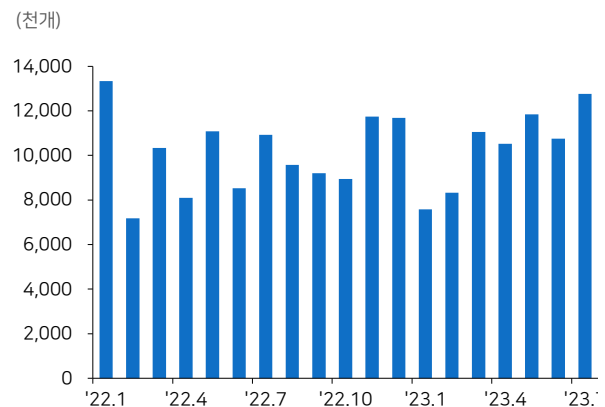
자료: 큐 테크놀로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큐테크놀로지 3,200만 화소 이하 카메라모듈 출하량



자료: 큐 테크놀로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큐테크놀로지 3,200만 화소 이상 카메라모듈 출하량



자료: 큐 테크놀로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과 큐테크놀로지 핸드셋용 카메라모듈 출하량 추이



자료: CAICT, 큐테크놀로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